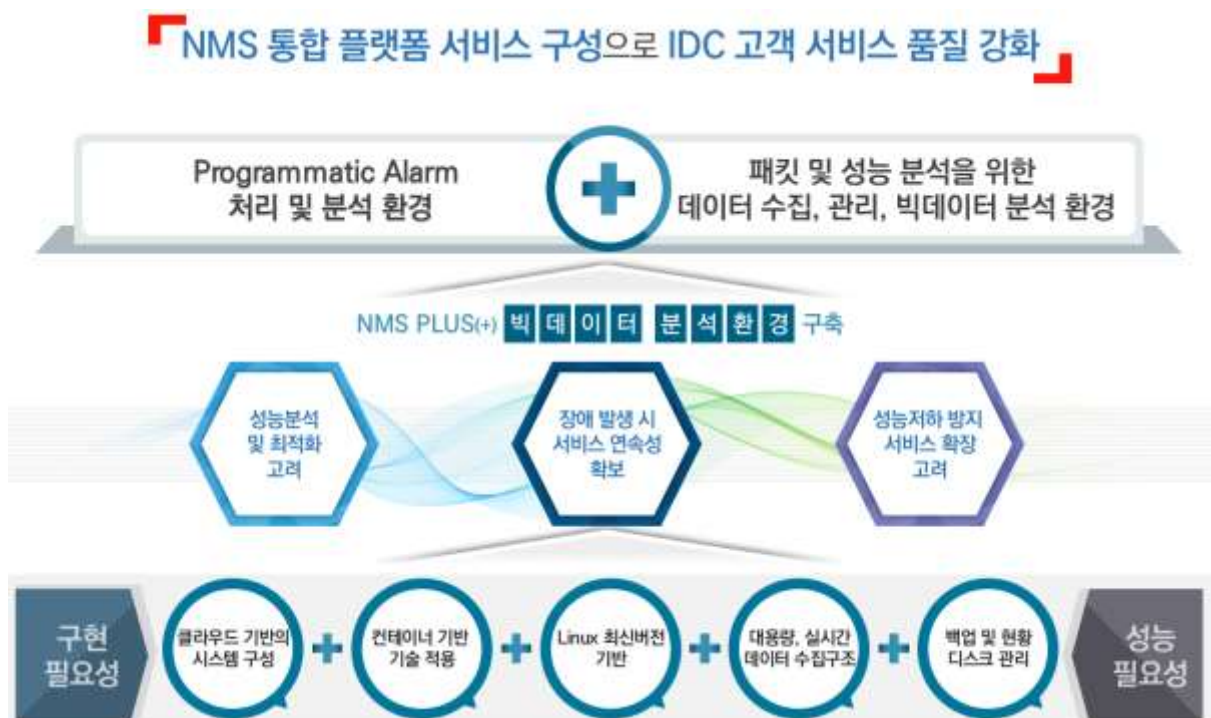


[모비젠 보도자료]

## (주)모비젠/SK브로드밴드 '차세대 IDC 네트워크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협력

- ◆ SK브로드밴드의 IDC 고객 서비스 품질 강화 위한 차세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 ◆ 빅데이터 솔루션 '아이리스' 기반의 NMS 통합 플랫폼 서비스 구성

(주)모비젠(대표 김태수, 고필주)은 SK브로드밴드(주)(사장 박정호)에서 추진중인 '차세대 IDC(Internet Data Center, 이하 IDC) 네트워크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주사업자로 선정되어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미지-SK브로드밴드 제공>

본 사업은 SK브로드밴드의 IDC에서 운용 중인 기존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Network Management System, NMS)을 빅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고도화함으로써 차세대 IDC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통합 NMS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기존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은 IDC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들에게 서비스 성능과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 기본적인 운용 및 관제 중심의 환경을 제공해왔으나, 서울

가산동에 구축중인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비롯하여 향후 시스템/고객 확대를 고려한 패키지 플랫폼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다. SK브로드밴드는 이번 사업을 통해 IDC 네트워크 운용자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네트워크 운용은 물론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IDC 고객 서비스 품질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19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SK브로드밴드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 빅데이터의 분석을 위한 신규 기능 강화 ▲ 운영자(DevOps) 환경 구축 ▲ 고객 서비스 자동화 환경 구축을 포함한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주)모비젠은 지난 수년간 SK브로드밴드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자사의 빅데이터 솔루션 '아이리스(IRIS)'를 적용해 기존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애플리케이션의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컨테이너 기술(Docker Container)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컨테이너 기술은 애플리케이션의 구동 환경을 가상화하는 기술이다. 운영체제(OS) 상에서 직접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환경을 가상화하기 때문에 가상머신(VM)에 비해 가볍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며,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그리고 개인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쉽고 빠른 배포가 가능하여 확장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사업의 총괄 책임자인 김대용 (주)모비젠 팀장은 "최근 IDC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들이 서비스 품질은 물론 어떤 서비스를 언제,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세분화하여 알고자 하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모비젠은 SK브로드밴드의 IDC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에 다수 참여하여 다양한 요구 사항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필요한 솔루션을 시기 적절하게 제공해 왔다. 다년간 축적해 온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연계 기술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모비젠은 다년간 IDC 서비스 트래픽과 품질 관리 및 분석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왔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서버, 스위치 등 각종 장비는 물론 공조시설의 설비까지 통합 관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IDC 운영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 별첨]-회사소개

(주)모비젠의 역사는 2000년 회사 설립 당시, 국내 최초로 이동통신사의 대용량 과금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신서비스 고객의 체감 품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시작된다.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생소했던 당시에,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하루에 수 천만 건씩 생성되는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고, 10 여건의 관련 특허를 포함하여 이를 꾸준히 발전시킴으로써, 기업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다.

(주)모비젠은 누구나 개발자의 도움 없이 빅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의 이상탐지 및 예측 수요에 시기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빅데이터/AI 분야와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 환경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OSS(Operation Support System, 운용 지원 시스템) 분야에서 보다 효율적인 솔루션을 공급함으로써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주)모비젠이 2008년에 한국 최초로 독자 개발하여 출시한 빅데이터 플랫폼인 ‘아이리스(IRIS)’는 일일 수천억 건씩 발생하는 빅데이터의 수집, 가공, 저장, 탐색, 분석 및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토털 서비스를 성능 저하 없이 제공함으로써, 페타바이트(PB) 수준의 빅데이터를 보유한 고객들이 단시간내에 인사이트를 도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주)모비젠은 SK텔레콤, LGU+ 등 통신 사업자를 비롯하여 SK 브로드밴드, SK 하이닉스, 코레일, 삼성 화재, 금융보안원, 전력연구원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고객들의 비즈니스 개선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본인정보 활용(MyData) 사업 등 정부 주도의 빅데이터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사업문의] 모비젠 사업총괄 이세연 부사장 010-4114-9360 [sylee@mobigen.com](mailto:sylee@mobigen.com)**

**[PR] 지란지교시큐리티 전략기획부 박지선 대리 010-2766-0657 [js\\_pr@jiran.com](mailto:js_pr@jiran.com)**